

실사 구시

Dynamic
Tomorrow
Vol.19
December
2010

Brain

Technology Ajou

유비쿼터스컨버전스연구센터 / 로봇연구 동아리 A.T.O.M.

Brain People

분자과학기술사업단 / 에너지시스템사업단 /
TOD기반지속가능도시교통 연구센터

From Heart to Brain

현재 20대의 뇌는 과부하 상태

Brain Trust Ajou!

아주만의 연구기관 소개 / 아주 노벨상 /
Brain Factory 중앙도서관 / 너의 머릿속의 궁금해

I Brain = Ajou Brain

디지털 혁명과 변화에 맞춰 적응 · 훈련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뇌.

섬세한 아날로그적 감성과 업그레이드되는 디지털 기술이
서로 조화롭게 사용된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균형을 이루고 좀 더 젊고 유연한 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꾸준히 진화하고 있는 우리의 뇌를 따라가기 위해
미래의 핵심 브레인을 만들어 가는 Ajou에서 'Brain Manual'을 찾아보자.

2010년 12월호 (통권 19호)

발행일_ 2010년 12월 10일

발행인_ 아주대학교 총장직무대행 박종구

편집인_ 아주대학교 대외협력처장

발행처_ 아주대학교 홍보팀 031-219-2917~9/2060

기획, 편집 및 디자인_ (주)트래드인터내셔널 02-575-8631

사진_ 보브스튜디오 02-542-0190

일러스트레이터_ 이두진

출력 및 인쇄_ 우리인쇄 02-2278-7017~9

CONTENTS

04 Technology Ajou

디지털 시대로의 새로운 진입, 이제 생활의 중심에 서다
유비쿼터스컨버전스연구소장 조위덕 교수

디지털과 아날로그적 감성이 만나다

로봇연구 동아리 A.T.O.M.
(Advanced Technology Of Mechatronics)

08 Brain People

아주 특별한 연구 - I

나노메디신 분야의 미래를 열다
분자과학기술학과장 김재호 교수

아주 특별한 연구 - II

한 발 앞선 에너지 연구를 날날이 밝히다
에너지시스템사업단장 김창구 교수

아주 특별한 연구 - III

도시교통의 새로운 미래
TOD기반지속가능도시교통 연구센터 연구책임자 최기주 교수

14 From Heart to Brain

현재 20대의 뇌는 과부하 상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외협력처장 송영균 교수

16 Brain Trust Ajou!

아주만의 연구기관 소개

공학연구소/법학연구소/의과학연구소/간호과학연구소/
약과학연구소/정보전자기술연구소

아주 노벨상, 내일의 발명왕을 만나다

김현우(e-비즈니스 06) 학생

Brain Factory, 중앙도서관

너의 머릿속의 궁금해

24 Ajou News

아주 속 또 하나의 울타리

AFIA 편

아주 인터내셔널데이

교내소식



TECHNOLOGY
AJOU

디지털 시대로의 새로운 진입, 이제 생활의 중심에 서다

전자공학부 조위덕 교수

아주대학교 유비쿼터스컨버전스연구소장

아주대학교 유비쿼터스시스템연구센터장

지식경제부 UCN사업단장 (www.ucn.re.kr)



인터넷의 등장은 2000년대 초기 정보의 바다로서 의미에 그쳤다면, 이제는 많은 정보를 융합하고 재구성하며, 사용자 스스로가 새로운 사회와 문화 그리고 비즈니스의 세계를 창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처럼 '못할 게 없는' 인터넷 환경과 나날이 발전되는 스마트 IT기술의 진보는 사회 전반적, 더 나아가서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생활공간 및 시간 속에서 당연한 듯 함께하는 삶의 일부분으로 실체화되었다. 디지털 시대, 우리는 그 편리함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그 흐름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디지털 시대, 새로운 진입을 하다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스마트 세상의 빅뱅

직접적인 만남에서 전화, 팩스, 메일, 인터넷으로 발전되어 온 커뮤니케이션 형태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더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단순히 의사전달의 기능적 목적이 주었던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 모바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후반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인터넷은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비롯해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 커다란 충격파를 불러왔다. 특히 웹 2.0의 등장은 기존의 폐쇄적이고 전달자-정보-수용자라는 관계에서 그치던 커뮤니케이션의 정의를 뒤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웹 2.0은 간단하게 말해서 웹이라는 공간이 플랫폼의 역할을 하며, 데이터가 자유롭게 사용자에게 의해 생산, 공유된다는 뜻이다. 특히 '개방', '공유',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웹 2.0은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하던 사람들에게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효과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개방, 공유, 참여의 웹 2.0 특징과 맞물려 개인이 인터넷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형태도 다양하게 변화하게 된다. 요즘 가장 이슈로 떠오르는 소셜 네트워크가 바로 그 변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SNS로 대표되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SNS(Social Network System)는 단어적 의미로는 인맥 구축 서비스, 좀 더 나아가 개인의 관심사나 일상사를 공유하고 소통시켜 주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 개념을 인터넷 공간으로 가져와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것이다.

이러한 SNS의 특징은 사람들의 참여, 공개, 대화, 커뮤니티, 연결의 편리함이라는 점에 있다. 트위터나 한국의 Quik과 같은 웹 2.0은 커뮤니티에 '실시간'이라는 속도 개념이 더해져 마이크로 블로그, 다음이나 네이버 인터넷 카페와 같은 서비스로 SNS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어 뉴스를 비롯한 다른 어떤 매체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SNS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와 커뮤니케이션

페이스북과 트위터, 미니홈피, 미투데이 등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SNS의 등장은 '언제 어디서나 아무하고도' 라는 요건을 만족시켜줌으로써 그 목적이 의사전달에서 교감으로 이동하였으며, 상호작용이 강화되고 융합된 형태의 Two-way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화하고 있는 주요인이 되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SNS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긍정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자연스럽게 SNS의 성장을 불러일으켰다. 내가 알고 있는 지인뿐만 아니라, 같은 취미와 흥미를 가진 사

람들을 묶어주고 의사소통을 도움으로써, 성별, 나이, 지역, 국가를 초월한 다양한 세계의 사람들과의 정보소통이 가능해진 것이다. 음성통화보다 SNS나 트위터와 같은 마이크로 블로그, 이메일보다 미니홈피의 방명록, 뉴스그룹보다는 플톡, 미투데이를 선호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자연스레 개인화 트렌드를 이끄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가볍고 비동기적이며 자기공간화 트렌드를 주도하는 SNS의 등장과 성행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된 개인주의로 나타나게 되었다.

>>>디지털, 삶의 질을 높이다

스마트해진 모바일, 더 스마트해지는 라이프스타일

디지털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인 스마트폰은 PC처럼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개인이 원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가능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무 업무, 오락, 쇼핑 등 생활전반에 널리 활용되는 디지털 시대를 대표하는 말 그대로 '똑똑한 폰'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게 사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성장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스마트폰의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 및 보급의 배경에는, 멀티(Multi) - 휴대성 - 개인 최적화를 추구하는 디지털 세대의 특성이 잘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이 남들과 다른 차별화와 휴대성 및 기능성, 다양한 소통을 누리고픈 디지털 세대에게 크게 어필되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기에 스마트폰은 더욱 더 열린 세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렇듯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기기를 연결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스마트함은 더욱 높아지고, 사람들은 기존의 행동양식과 소비활동의 단계를 간단하고 빠르게 줄일 수 있게 되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다.

사라지는 가치, 새롭게 창조되는 가치

디지털 시대 속 생활의 '디지털화'라는 것은 생활수단들이 디지털 제품으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욕구나 여러 이벤트들을 디지털로 처리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디지털 시대는 SNS, 스마트폰, 스마트 홈 등 다양한 사회적 트렌드를 등장시키며 경계를 뛰어넘어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있다. 사람들의 삶은 더욱 간편해졌고, 행동은 자유로워졌으며, 개인의 특성에 맞춰 갖가지 문화를 선택해 누릴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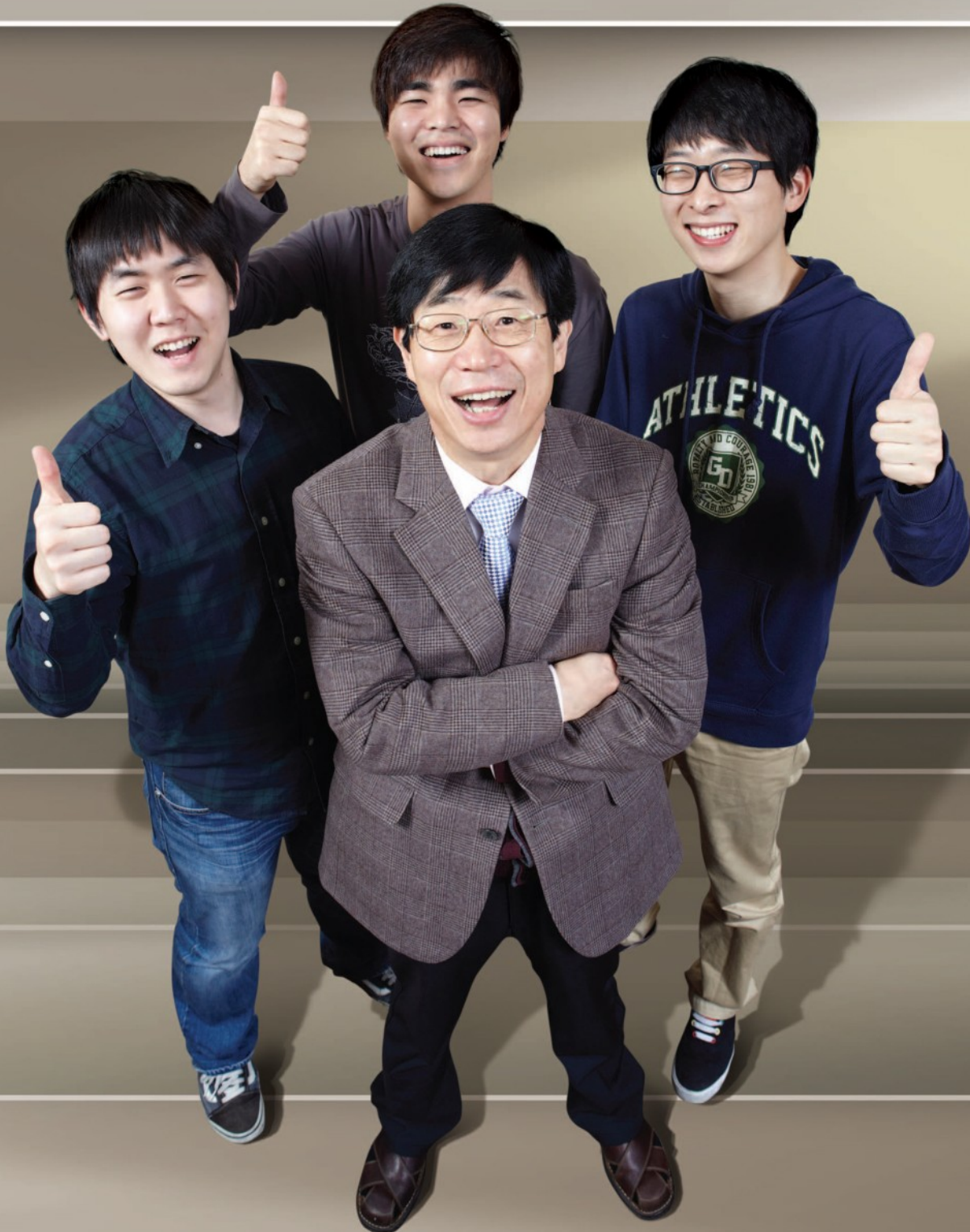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어 다기능화되고 개인화되는 이러한 생활의 발전은 많은 사회적 변화를 더불어 일으킴으로써 하나의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사회가 디지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디지털이 삶의 방식을 바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한 디지털화는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현재를 창조하여 미래를 앞당기고 있다.



TECHNOLOGY
AJO

디지털과 아날로그적 감성이 만나다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디지털 세계!

로봇연구 동아리 A.T.O.M.
(Advanced Technology Of Mechatronics)





“ ‘감성 인터페이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시각과 청각만 생각 했는데 요즘에는 움직이는 감성(촉각)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후각, 미각까지도 넓혀 가겠죠. 전자공학도 이젠 기계와 사람의 인터페이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ATOM은 어떤 것을 연구하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 동아리 인가요?

ATOM 저희는 흔히들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가 아닌 냉장고, 전자레인지 같은 가구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짜고 회로를 설계하는 ‘Embedded system’을 내부적으로 구축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쪽 까지도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OS로 되어 있는데 현재 OS를 올리는 단계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톰 동아리 회원들은 각자 하나씩 대회들을 준비합니다. 학교 전자 전시회 때는 회원들이 개발한 기계를 모두 발표하고요, 저희 동아리는 모임의 날짜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동아리방에 가면 항상 누군가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전부 모여 서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김영길 교수 아톰은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서 깊은 동아리로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전자부품 등을 이용하여 Embedded system(Smart phone, PDA, Small size robot, 무인 비행기 등)을 제작하는 모임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주목하고 있는 동아리로 2008년에는 아주대학교 전체 동아리 컨테스트에서 은상을 받았으며, 그 다음 해에는 동상, 그리고 올해는 학교 전자 전시회 때 1등을 했습니다. 아톰 친구들은 엔지니어의 정 의에 완벽히 부합되는 인재들입니다. 엔지니어라는 컨셉은 무엇인가를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보고서를 쓰고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으로만 해결하는 데 우리 아톰인들은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ATOM인들은 개발자로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영길 교수 디지털은 1, 0 (True, False)에 이어서 O, X(한다, 안 한다)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인 사람들의 생각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회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죠, 그것에 비교해서 아날로그를 보면 아날로그는 1과 0사이에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존재합니다. 1과 0사이에 무한히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쪽이 더 인간적이고 개발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TOM 저희도 디지털 세대인 만큼 디지털 기기들을 자주 접하는데, 생각하는 것을 보면 교수님 말씀처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국문 등의 아날로그적 감성을 배울 때는 답이 꼭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중간 값도 있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디지털 세대들이 판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 이화 세대들은 그런 점이 더 부족한 것 같고요.

ATOM은 아날로그적 감성이 결합된 디지털 동아리인 것 같아요. 어떤가요?

김영길 교수 ‘감성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시각과 청각만 했는데 요즘에는 움직이는 감성(촉각)까지 연구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는 후각과 미각까지도 넓혀가겠죠, 전자공학도 이젠 기계와 사람의 인터페이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촉각까지 와 있고 후각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 미각은 어려운 단계이고요, 이곳에서 실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기 TV라고 있습니다. 향수병을 TV뒤에다가 3~4병을 달아놓고 그 밑에다가 일종의 선풍기를 설치해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향이 유지한데 날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감성과 오감이 융합된 첨단 기술을 저희 아톰에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ATOM에서 진행 중인 연구가 휴먼 디지털 세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 나요?

김영길 교수 실버 사용자들과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연구진 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들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재활보조기구, 의족, 의수 등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로봇 등을 개발한다면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까지 높일 수 있겠죠.

ATOM 저희는 미디어 쪽,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로봇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습니다. 또한 교수님 말씀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싶고요, 현재 글, 소리, 수화를 연동해서 서로 바꾸어주는 어플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한테 수화를 하게 되면 스마트폰 카메라가 인지를 해서 소리로 바꾸어 주는 어플입니다. 청각 장애인에게는 글로 바꾸어 주겠죠, 이렇게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로봇이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ATOM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들려주세요.

김영길 교수 아톰은 전자공학부 출신 동아리가 아니라 전자, 기계, 미디어 등의 여러 과가 복합된 융합 학문 분야의 동아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하나를 놓고 바라보는 각도가 전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이 장점이 되는 거죠, 훨씬 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고 적합하게 개발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러한 아톰의 장점이 로봇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보여질 것 같습니다.

ATOM 25년째 아톰 동아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단순히 팬을 잡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편견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톰인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개발자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자도 충분히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즐거운 직업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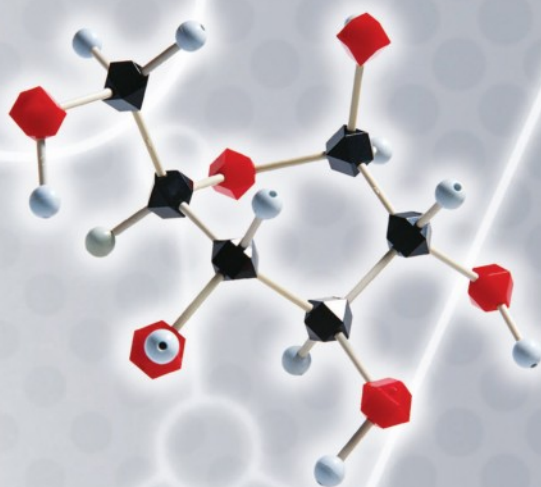
BRAIN
PEOPLE

아주 특별한 연구 - I

나노메디신 분야의 미래를 열다! ‘분자과학기술사업단’

응용화학생명공학부 김재호 교수

분자과학기술학과장



인류의 복지향상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교육과 연구를 맡고 있는 브레인코리아21(BK21) 사업단이 있다. 바로 아주대학교 김재호 교수가 이끌고 있는 분자과학기술사업단. 이곳에는 공학도가 수술실에 들어가고 의학도가 기계를 다루는 장면이 낯설지 않다. 여러 전공분야 간의 자연스러운 협력과 기여를 바탕으로 탄생된 융합기술분야로 나노메디신의 새 역사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나노메디신 분야를 분자과학기술사업단 단장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재호 교수에게 들어본다.

아주대학교 대표 BK21 사업단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원 육성 사업인 BK21은 'Brain Korea 21 Century'의 약자로 국가에서 연구역량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을 중심으로 보다 수준 높은 대학원 육성과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 과정생 및 신진연구 인력(박사후 연구원 및 연구교수)을 집중 지원하는 고등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다.

1999년에 시작해 2006년도까지 7년간의 첫 1단계 사업을 마쳤으며, 지금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2단계 사업의 5년 차로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아주대학교 김재호 교수가 이끌고 있는 BK21 분자과학기술사업단은 한 발 앞선 나노메디신 분야 연구로 값진 결실 뿐 아니라 국내 연구계의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나노메디신 그 중심에 서 있는 아주대의 교육·연구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이름인 '분자과학기술사업단'은 국내 최초로 나노기술을 중심으로 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을 융합한 융합학문 분야이다. 즉 화학, 의학, 물리, 생명과학, 생명공학, 재료공학, 전자공학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서로의 전문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융합 기술영역을 구축하고 기존의 인적 자원과 학문 분야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분자과학기술사업단은 1단계 BK21사업 중에 유일하게 융합분야의 대형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정규 대학원과정을 설립하였고,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동일한 명칭 아래 나노메디신 분야로 교육과 연구를 특화하여 대형사업단으로 다시 선정되었다.

분자과학기술학과 교수 겸 학과장인 김재호 교수는 "아주대학교를 시초로 융합학문의 BK21사업단을 구성하는 대학들이 생기면서 좀 더 특화된 우리대학만의 경쟁력이 필요했습니다.

1단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나노기술과 의과학 분야로 집중된 융합학문으로서 나노메디신 분야를 출범하게 된 거죠"라며 분자과학기술사업단과 나노메디신의 탄생을 이야기했다. 나노메디신은 나노기술과 생명공학을 의학에 접목해 의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융합기술이다. 예를 들어 암 진단 시 현재 의학으로는 조직을 떼어내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조직검사와 MRI 혹은 CT촬영을 통해 접근이 어려운 위치의 암을 진단한다. 이런 진단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작은 크기의 병변 조직을 검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나노기술, 생명공학 기술이 의학과 접목하면 미세한 암조직을 식별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질병을 진단하여 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

한발 앞서가는 아주대의 교육·연구 프로그램

분자과학기술사업단 나노메디신 교육 프로그램은 공학도가 수술실에 들어가고 의학도가 나노기술을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하여 차세대 나노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혁신 교육·연구의 중심점에 와 있다. 분자과학기술사업단이 국가경쟁력을 갖춘 최상위사업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주대학교의 적극적인 지원과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들 간의 효과적인 협력이 있었

기에 가능했다. "아주대학교는 젊고 다이나믹한 대학이고 공과대학, 자연대학, 의과대학, 병원이 한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이 의학이 바로 매우 효과적으로 상호 접목될 수 있는 장점이 된 거죠. 그로 인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서로의 장벽을 허물고 21세기에 꼭 필요한 나노기술과 의과학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련 분야 연구에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김재호 교수는 아주대의 교육·연구프로그램의 완벽한 호환성 덕분에 분자과학기술사업단-나노메디신의 연구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말한다.

국가에서 인정한 전국단위 최상위사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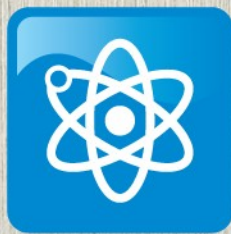
분자과학기술사업단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발되어 교육 및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다. 국가지원 사업은 엄격한 심사 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발되는데 그 기준은 대학원교육에 요구되는 교육, 연구, 산학협력, 국제화 등 전반에 걸쳐 있다. ▲교육과정, 교육역량, 영어강의 비율, 강의 평가, 취업률 등 교육분야, ▲SCI 논문발표, 특허 출원, 기술이전 등의 연구역량, ▲산학협력, 국제화 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고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아주대학교는 이화여대, 한양대 등 총 5개 대학 중에서 그룹별 평가로 2007년, 2009년 2회에 걸쳐 최우수사업단(1위)으로 선정되었고 올해 2위를 차지하는 등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나노메디신 전문 인력 양성

분자과학기술사업단은 21세기 나노기술과 의과학 지식을 겸비한 글로벌 시대의 전문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그동안 분자과학기술사업단에서 양성한 석·박사 전문 인력이 1,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김재호 교수는 "분자과학기술사업단은 세계적인 나노메디신 연구 및 교육 기관인 Northwestern대, Georgia공대, 동경대 그리고 국내 굴지의 나노기술과 의학 분야의 기업이 연계하여 실질적인 국제화된 대학원 프로그램, 현장과 밀접한 프로그램 등 끊임없는 진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분자과학기술사업단은 36명의 교수와 약 160여 명의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전국에서 가장 큰 BK21사업단을 이루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아주의 연구

분자과학기술사업단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있다. 김재호 교수는 "옛날에는 한국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갔지만 지금은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등의 아시아와 동유럽,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언어와 문화의 장벽 없이 좀 더 세계화로 다가가면서 한층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앞으로의 기대를 피력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2년 후면 끝나게 될 2단계 BK21사업을 잘 마무리 짓고 3단계에 있을 BK21사업을 대비하여 14년에 걸쳐 잘 만들어진 분자과학기술사업단을 세계적인 교육과 연구의 집단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라며 BK21사업단에 대한 열정을 내비쳤다.



BRAIN
PEOPLE

아주 특별한 연구 -II

에너지시스템사업단 BK21사업 2년 연속평가 1위

한 발 앞선 에너지 연구를 날날이 밝히다!

화공·신소재공학부 김창구 교수

에너지시스템사업단 단장



“ 무엇보다도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단의 소속 교수와 학생들은
아주대학교를 대표하는 연구/교육 집단이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1위라는 결과는 우리의 노력이
아주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분야의 연구/교육 집단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그 자신감이 더 큰 열정과 연구개발의
노력으로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 이번 평가 1위가 아주대학교 혹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김창구(에너지시스템사업단 단장/화공·신소재공학부)
교수의 답변 중-

**국내
에너지 분야에
맥을 이어온
'에너지시스템
사업단'**

에너지시스템사업단은 1999년도에 처음 시작된 제1단계 BK21사업을 종료하면서 참여했던 교수들을 주축으로 나노분야와 에너지 분야의 교수들과 합심하여 '나노과학기술의 에너지 분야 적용'을 목표로 2006년 제2단계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다. 그 이전에도 에너지시스템사업단의 모태가 되었던 기존의 아주대학교 대학원 에너지학과는 1988년 전국 최초로 대학원에 에너지학과를 설치하고 석사과정을 개설한 데 이어 1991년부터 박사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우리 대학만의 에너지 전문성을 갖춰 현재까지 110여 명의 석·박사를 배출해 국내 에너지 분야의 교육·연구를 선도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합적이고 복합 학제적(poly-disciplinary) 교육과정을 확립하여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미래형 에너지와 기후변화 전문 인력 양성에도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에너지시스템사업단은 좀 더 구체적인 기초과학, 응용 과학기술, 사회과학 등 3개의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융합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에너지 소재'와 '에너지 변환의 효율화 및 청정화'의 교육연구를 단위기술과 공정 위주가 아닌 시스템적 접근으로 특성화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 문제의 제 요소를 아우르는 '에너지 시스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학제간 연구 교육을 통해 에너지 부문의 환경 변화와 지속적인 기술진보 추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에너지시스템이라 하면 자연 상태의 에너지를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수요에 충족시키도록 변환하는 과학·기술적 및 경제·사회적 과정 전반을 이르는 것을 말한다. 에너지 원료의 확보, 수송, 변환, 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일 학문 분야만으로는 연구와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를 종합적으로 조감하는 시스템 분석 인력, 에너지 변환 과정의 효율화 및 청정화를 위한 공정 설계 전문가, 그리고 에너지 장치와 직결되는 소재과학기술 전문가 등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러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크게 '에너지 소재', '에너지 변환의 효율화 및 청정화', '에너지 시스템 분석, 진단 및 정책'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에너지시스템 전체를 이해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전문 인력을 키우고 있다.

**노력과
화합이 이뤄낸
BK21사업
연속평가 1위**

BK21사업은 매년 전국 70개 대학, 555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평가를 실시하는데 그 평가 기준은 크게 교육, 연구, 산학협력, 대학원 특성화로 나눌 수 있다. 그에 따른 철저한 실적 기준으로 교육과정, 학위배출, 취업, 대학원생 논문 게재 및 학술발표, 교육의 국제화 실적과 신진연구인력 성과로 교육 부문을 평가하며, 연구 부문은 정부로부터 연구비 수주, 참여교수의 연구실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산학협력 부문은 산업체 지원금 수주, 산업재산권, 기술이전 실적 등으로 평가되며 대학원 특성화 부문에서는 에너지시스템사업단에 대한 대학본부의 투자 실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까다롭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시스템사업단이 2년 연속 평가 1위

를 차지하는 데에는 수많은 경쟁력과 타 대학의 뛰어난 연구결과를 뒤로 하고 우리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의 노력과 화합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평가에 대해 김창구(에너지시스템사업단장/화공·신소재공학부)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자. "대체적인 홍보효과와 그 자체로 상징성을 지니고 BK21사업을 수행하는 에너지시스템사업단의 교수와 학생은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아주대학교 내에 BK21사업을 수행하는 대형 사업단은 의과대학을 제외하면 우리 사업단을 포함해서 두 개의 사업단이 전부이기 때문에 더욱 더 우리대학의 대표 연구 집단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2단계 BK21사업의 경우 꼭 1등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각자 맡은 바 교육과 연구에 충실했을 뿐인데 이러한 노력이 평가 1위라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또한 이 과연구는 교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참여가 결과로 좌우됩니다. 그런 면에서 참가자들의 역량과 할 수 있다는 분위기, 꾸준한 홍보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게 되고 그 결실이 4~5년차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국내외
에너지 및
기후변화관련
지도자 양성**

에너지시스템사업단은 에너지 관련 기초 응용 연구와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각종 정부 기관과 기업의 에너지 정책 및 경영전략 수립에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인재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학제적(interdisciplinary)이고 복합 학제적(poly-disciplinary)인 접근방법으로 기존의 특정 전공이나 과정을 넘어 국제화 및 지식 정보화 시대의 요청에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시스템 사업단은 실질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미래지향적인 연구 및 관리 능력을 갖춘 미래의 국내외 에너지 및 기후변화관련 지도자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세계 유수의 대학·연구소와 교수 및 학생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공동 학점인정제를 실시하며 교육 및 연구관련 정보·자료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BRAIN
PEOPLE

아주 특별한 연구 -III

‘선도연구센터육성사업’ 선정

도시교통의 새로운 미래, 최기주 교수가 들려주는 연구이야기

환경건설교통공학부 최기주 교수

「TOD기반지속가능도시교통 연구센터」연구 책임자



“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무엇이든 처음은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하고 꿈을 꾸기 시작하면 이미 절반은 이루어진 겁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과연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1주일간 고민하며 전체적인 틀을 완성하고, 정부의 시책과 결합시키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죠.

꿈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고 철실히 고민하면 언젠간 이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연구센터가 꿈꾸고 이뤄 낸 증거니까요. ”

“TOD기반지속가능도시교통 연구센터” 설립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현재 도시교통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요 핵심과제인 지속가능 도시와 교통 체계를 만들기 위한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연구센터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를 구현하고자 필요한 모든 핵심요소와 평가모델의 필수적인 연구 기반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하였습니다. 센터의 가장 큰 목표이자 핵심 연구 가치는 한 마디로 “TOD기반의 지속가능 도시-교통체계의 구현을 위한 요소기술개발과 통합모델 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계획과 도시계획의 분리’로 그간 우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해 왔던 ‘승용차 중심의 비환경 친화적인 자원소모’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TOD기반지속가능도시교통 연구센터”에서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본 연구는 3가지의 과제를 두고 연구를 시작하여 총괄과제 - TOD기반 통합 녹색교통체계 계획기술 개발, 총괄2과제 - Human - Powered 교통 수단 모니터링 및 운영관리기술 개발, 총괄3과제 - TOD기반 저탄소 녹색도시 설계 및 평가기술 개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1과제에서는 대중교통지향형 압축도시구현을 위한 교통계획과 수요관리의 제반요소기술 및 모형개발을 연구하며 총괄2과제에서는 대중교통지향형 도시 중심부에 비동력·무탄소의 주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행자 및 자전거중심의 교통시스템 운영기술들을 연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총괄3과제에서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건축+교통통합 설계기법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연구합니다. 여기에는 TOD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복합 환승시스템과 대중교통중심축을 활용하는 ‘Green Center’와 ‘Green Corridor’의 기술 개발 및 고밀중심지와 저밀주거지의 설계기술이 포함됩니다.

2010년 한국연구재단의 선도연구센터로 선정되었는데도, 보이지 않는 노력이 상당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저희는 사실 다른 팀에 비해 많은 준비 기간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단기간 동안 상당한 집중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우선, 저 혼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각 분야의 교수님들이 다들 top-down방식을 이용했죠. 3월말부터 7월 중순까지 오로지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총 23개의 대학이 토목, 건축, 기계, 에너지 분야에서 지원을 해 최종 1개 분야가 선정되는데, 일정이 4월말 1차 평가에서 4개 분야를 선정, 7월 중순 제안서 제출 및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마치고 8월 중순에 최종

평가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거의 매일같이 철야를 하고, 다른 교수님과 이전의 연구 경험을 참고하는 등 총체적인 접근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NRF가 있는 대전에도 여러 번 찾아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특히 이미 ERC를 운영 중인 한양대 신성우 교수님의 경험과 준비하시던 자료들은 그야말로 큰 기반과 도움이 되었죠. 한 마디로 연구 분야, 평가전략 분야, 제안서 준비는 물론 발표 분야 등 모든 내용들을 암기에 다다를 정도로 확인하고 연습하며 보완해 나갔습니다. 총 평가 점수에 발표가 50%를 차지하는 만큼 3회에 걸쳐 총장실에서 이행 연습을 했을 정도니까요.

선정 기준과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도연구센터육성사업 중 본 ERC 분야의 경우 선정을 주관하는 NRF가 학제간 연구 센터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을 지향하는 현정부의 국시와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는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책임자를 비롯해 우수연구자의 집단으로 손색이 없는가를 판단하는 연구 집단의 우수성 그리고 TOD분야의 연구를 세계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연구 진흥목표가 충분하기를 평가하여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가 교통·도시·건축의 통합모델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각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참여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을 포함한 10여개의 기관과 산학협력기 가능하도록 계획한 것도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주대학교 총장직무대행 박종구 부총장님의 전폭적인 지지는 물론 학교 전체가 뒷받침해 준 것도 선정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매년 9억 원에서 13억 원의 정부연구비를 최장 10년간 지원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선도연구센터는 1, 2, 3단계별(1차 - 7년, 2차 - 3년) 총 10년까지 지속될 수 있고 최대 100억 원 가량의 연구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약 10명의 연구자가 연평균 1억 원 정도를 지원받고 이는 거의 대부분이 학생들의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그로 인해 장학금 제도가 다양해지며, 우수한 연구교수와 인재를 유치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순수한 학문적 발전을 위한 SCI급 논문 양산과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TOD관련 가이드라인, 특허등록 등을 개발하여 산업화와 제도화시키는 것이 저희가 연구 지향하는 최종 목표입니다. 그 노력들은 결국 한국의 TOD도시교통개발이 해외의 모범사례가 되어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전망해 봅니다.



From Heart
to Brain

현재 20대의 뇌는 과부하 상태 !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영학부 송영균 교수
대외협력처장 / 국제대학원장 / 한국어학당원장



“ 넘쳐나는 정보 과잉으로 자기만의 명확한
주관과 가치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기본적인 철학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니터 앞에만 앉아 있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만들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도전도, 실패도 해 봐야 합니다! ”

현재 우리 대학생들은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 발달로 정보 과잉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대상황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라고 결정짓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학생들이 아직까지 성숙단계인데 넘쳐나는 과잉정보로 자기만의 명확한 주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걸 받아들이고 버려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단순히 쉽고 좋아하는 쪽으로 휩쓸릴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에는 How-to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Where-to로 생각한다는 거죠. 어디 있는지만 찾아보니 본인 스스로 창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보에만 의존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주입만을 하게 되면 그게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의 주관에 의해서 작성된 정보인데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 접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동화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의도하는 대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부분을 경계할 수 있지만, 너무나 많고 시대적인 상황으로 당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요즘은 지식검색으로 무언가 의문이 생기면 스스로 사고하는 것보다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하지만 교수님 시대 때, 아날로그 세대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저희 때에는 보통 3단계를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책을 읽는 것.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곤 책밖에 없었으니깐 책을 읽는 게 당연했습니다. 우리보다 한 세대, 두 세대 훨씬 더 많은 윗분들의 생각을 접해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동료들과 같이 토론하며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기와 동시대간의 세대들과 공유하는 단계죠. 마지막 단계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기초로 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옛 선배들의 생각, 동료들의 생각을 좀쳐서 자기의 생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방식이 없어요. 선배도 없고 자기 자신도 없습니다. 동시대에 많이 제공되는 정보에 따라서 자신을 정형화시킬 뿐입니다. 단순히 모니터 앞에 앉아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고민할 필요도 없이 말이지요.

지금 사회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손쉽게 정보를 얻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만한 건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의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기의 가치관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치관을 쌓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올바른 가치관이 자리 잡으려면 시행착오를 겪으며 도전도 해보고 실패도 해 봐야 하죠. 그러면서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주관이 설립되면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도 어떤 것을 버리고 얻어야 할지 판단력이 생기게 됩니다.

20대들의 뇌를 과부하 상태로 만드는 것 중 또 하나가 취업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의 꿈이 없이 단순한 취업을 위한 생각으로 뇌를 과부하시키는데요. 이런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마디 해주신다면?

취업이라는 것을 떠날 수는 없어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문제죠. 저는 취업이라는 부담을 해결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요즘 학생들이 하듯이 스펙을 쌓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보증을 드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진로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 어떤 것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취업을 위한 자격증이라면 소용이 없다

고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리더십'을 기르는 일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취업을 위한 결정적인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에는 외국어 능력도 포함될 것이고,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에도 속합니다. 리더십이라는 것도 쉽게 양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료, 선배, 교수님과의 접촉이라든지, 소학회 또는 동아리 활동으로 얻는 간접경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만들어 나가고 얻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20대들은 이런 중요한 경험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단순히 자격증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 것보다는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스킬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대의 뇌를 과부하 상태로 만드는 요인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만드는 것인데요. 아주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대학생들의 사고력을 높이고 생각의 폭을 넓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요?

첫 번째로 아주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아주대학교 국제교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정도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00여 명이 넘는 외국인 학생이 학위프로그램에 있고 매년 400여 명의 학생들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렇게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학생들은 활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400여 명이 아주대학교에 들어오는데 우리 학생들은 300명 밖에 외국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진취적인 면에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젠 외국 학생들과 경쟁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생활 뿐 아니라, 낯선 환경이 자신한테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딪히고 도전해 봐야 배울 수 있습니다. 젊은 20대들은 실패의 기회비용이 작습니다. 그럼 일단 해보는 겁니다. 시기가 늦을수록 실패에 대한 기회비용은 점점 커지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교환학생이 길다 싶으면 1~2주일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교류와 관련된 동아리(People to People International)나 소학회들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경험 또는 간접경험을 자꾸 시도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BRAIN TRUST
AJOU!

아주만의 연구기관 소개

‘실사구시’에 뿌리를 둔 아주의 연구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



아주대학교의 연구·교육활동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정도로 실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기본 연구기관을 비롯하여 전문화 및 특성화 연구기관으로 총 24개의 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으며 아주 연구만의 특성과 우월성이 하나로 모여져 한 발 앞선 융합연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주대학교는 연구 활동에 있어서 ‘실사구시’ 이념을 으뜸으로 추구하고 있다. 실사구시란 ‘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를 추구한다.’는 뜻으로 학문의 결과가 실제로 유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진리탐구와 학문연구가 사실에 부합, 인류복지에 기여하는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주의 실용적인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그 중에 몇몇 연구기관을 소개한다.

공학연구소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공학연구소는 공과대학 각 전공분야를 주축으로 학제간 융합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수행하고 있다. 또한 타 연구기관은 물론 지역 내 각 분야의 산업체들과 공동연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현재 공학연구소 산하에는 11개의 연구센터가 있으며, 자동차, 공정개발, 고분자,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법학연구소

Legal Research Institute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학연구 성과를 일반화시킨 ‘아주법학’ 과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학술지인 ‘중소기업과 법’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9개의 분야별 연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각 세부 법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국내 유수의 학회 및 법률기관과의 학술대회와 교수집담회 및 학생 중심의 대학원생 학술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 현안에 대한 법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법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의과학연구소

Institute for Medical Sciences

앞선 기술의 의료 연구와 교육을 통한 진료의 질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의과학연구소는 1995년 6월 1일 각 연구실의 독자적인 연구수행 및 기초의학과 임상 의학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처음 설립되었다. 의과학연구소는 우수한 연구시설과 함께 전임 연구 인력을 확보하여 전임 행정인력을 배치하고 연구재원 확보, 연구비 지원 및 관리와 각 연구실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 업무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는 본격적인 연구정착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수준높은 연구성과가 나오고 있다. 의과학연구소는 의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공학 등 타 분야와의 지속적인 협동연구체제를 갖춰 국제수준의 의과학연구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간호과학연구소

Institute for Nursing Science

간호과학연구소는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간호사, 과학적 간호실무 능력을 발휘하며 세계화를 추구하는 간호사 양성을 목적으로 1998년 3월 간호학부 체제로 출발하여 2006년 간호대학으로 승격하였으며 현재 학부과정, RN-BSN과정, 대학원 석사과정, 전문간호사과정 및 박사과정을 모두 개설하여 명실공히 간호전문교육 체제를 확립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2008년 2월 간호과학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간호에 있어 교육과 연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보다 확대된 비전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간호학문의 발전뿐만 아니라 타학문과의 교류를 통하여 보다 확대된 간호의 모델을 제시하고, 병원 및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활발한 학문적 교류와 산학연구 및 다학제간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다.



약과학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Pharmaceutical Sciences and Technology(RIPST)

약과학연구소는 약과학 전반에 대한 학술연구의 수행과 자문 등을 통해 약과학 관련 교육 및 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있다. 신약개발을 위한 기반구축 및 기술 개발, 약과학연구자 양성과 국내외 연구자의 교류증진을 극대화시키고 기반학문인 약과학의 진흥과 인류의 건강증진 그리고 교육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과학연구소의 주요 사업은 약과학 관련 연구사업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약과학 관련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약과학 관련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움 개최, 각종 연구역사사업의 수주 및 수행, 연구성과와 자료의 편집 및 간행, 국내외 학술·연구기관과의 협력사업, 약과학 발전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이 있다.

정보전자기술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Information and Electronics Technology

정보전자기술연구소는 공과대학 전자공학부와 연계하여 정보통신, 이동통신, 반도체 및 전자재료, 컴퓨터 H/W 및 S/W, 로봇 및 자동화, 멀티미디어 등의 기반 요소 기술을 확보하고 이 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여러 관련 연구소를 통합하여 1995년 새롭게 출발하였다.

본 연구소에서는 국내 산업체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의 개발과 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산학협동의 연구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기계, 생산, 산업공학, 교통공학 등과의 학제 간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교수 연구원 31명, 외국인 2명을 포함한 전임연구원 4명,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100여명이 연간 10억원의 연구 수탁고를 올리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BRAIN TRUST
AJOU!

아주 노벨상, 내일의 발명왕을 만나다!

2010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김현우(e-비즈니스 06) 동문



“ 발명은 과학자나 기술자들이 하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발명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발전해 나가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관심이 있으면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요. ”

발명을 하게 된 계기와 첫 발명품의 시작은 무엇이었나 요?

어렸을 때부터 나뭇손재주가 있었고 만들기도 좋아했었어요. 그러다 우연찮게 고등학교 때 발명반에 들어가게 됐죠.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물을 얻을 때마다 조금씩 성취욕이 생기고, 즐거움과 재미도 함께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발명에 관해 더욱 빠져들게 됐습니다.

저의 첫 발명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든 '스피드 학습용 지구본'입니다. 박물관 내에 전시된 세계지도는 버튼을 누르면 위치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 원리를 지구본에 그대로 옮겨놓은 발명품이에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을 누르면 지구본이 대한민국의 위치를 정면으로 보여주면서 불빛이 반짝거리고 그 나라에 대해 소개해주는 거죠. 전선을 일일이 하나하나 연결해서 나라별로 불이 들어오게끔 했어요. 근데 전선이 여러 개가 들어가다 보니 엉키기가 쉽더라고요. 그때 생각해낸 게 마이크 잭이었어요. 마이크 잭 원리를 활용해서 360도 지구본이 돌아가도 선이 꼬이지 않게 만들 수 있었죠. 불빛도 LED는 너무 커서 사용을 못하니 유리광섬유를 생각해냈어요. 마지막으로 세계 몇 백 개국의 데이터를 넣어서 '스피드 학습용 지구본'이라는 이름의 발명품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위의 수많은 수상 경력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수상과 작품 이 있다면요?

이번에 받은 대한민국 인재상이 제게 가장 뜻깊은 상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값진 성과들을 평가하고 인정의 의미에서 상을 준 거잖아요. 인재상은 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난 성과를 발휘해 국위선양한 사람이거나, 한 산업에 원동력이 된 인재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최근에 대표적으로 김연아가 받았죠. 기억에 남는 작품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최근에 발명했던 '토탈 솔루션 자전거 보관함'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2010 한·중 발명전시회에서 '자전거 토탈 솔루션 시스템' 개발로 금상 수상을 하셨는데요. 어떤 발명품 인가요?

이 발명품으로 2009년 IP오션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어요. 그리고 2010년 중소벤처창업대회에서 사업 비즈니스 모델(BM)을 첨부시켜 수익성을 평가받아 장려상을 수상했죠. 그 후 세계대회는 특허출원품이나 국내대회 입상작도 출품이 가능해서 한·중 발명전시회에 출품해 금상을 받게 됐습니다. 기존 가로형 자전거 보관소를 인도에 설치하면 길을 공간도 부족하여 공간활용도가 매우 떨어졌어요. 또한 쉽게 파손되거나 도난사고에도 쉽게 노출되고요. 전 가로형이 아닌 수직 밀폐형 자전거 보관함을 만들었어요. 전기 모터를 이용한 자동 보관 방식으로 편리하게 보관이 가능하죠. 거기다 키오스크라는 기술을 접목시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했어요. 키오스크는 은행이나 백화점 전시장 등에서 사람대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종합정보안내 시스템이에요. 지하철에서 표를 끊어주는 기계도 이 키오스크 시스템이죠. 이걸 이용하게 되면 보관 뿐 아니라 유지보수, 수리 및 튜닝 등 다양한 자전거 산업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자전거가 고장 났을 때 어디가 고장났는지 체크만 해놓으면 서비스센터가 연결되어 있어 바로 수리사가 오죠. 이렇게 자전거 산업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소비자는 더욱 편하게 되는 발명품이에요. 현재는 보관함의 초기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키오스크처럼 고비용 제품이 없이도 서비스이용이 가능한 기술을 특허 진행 중입니다.

자신의 전공이 이러한 수상들과 경험에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원래과는 전자과였어요. 근데 이번에 e-비즈니스로 전과를 했죠. 사람들은 공대가 취업이 잘된다고 하지만 저는 취업을 목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싶진 않아요. 단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더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지 않는 건 무의미한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관심 있었던 전자와 최근 동향인 IT를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걸 배울 수 있는 학과가 e-비즈니스였죠. 물리적인 발명품을 제외하고도 지식재산권 특허에 보면 BM특허가 있거든요. 영업방식 등 비즈니스 모델로 받을 수 있는 특허죠. 자전거 보관함을 발명하고 수익성을 어떻게 낼까 고민을 했던 것도 비즈니스 모델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현우동문의 풍부한 아이디어와 창조성은 어디서 나오나요? 발명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발명은 과학자나 기술자들이 하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발명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발전해 나가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관심이 있으면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요. 창조성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살면서 길러지는 게 많아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노력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특특 튀는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무장한 현우동문의 머릿속이 궁금해요. 요즘 현우동문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당장은 중소기업청에서 수상자 특전으로 지원하는 벤처 해외 탐방 연수가 머릿속에 맴돌아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직접 시장조사 및 자신의 아이디어 적합성 등 다양한 조사와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또한 각 분야의 친구들과 함께 팀을 짜서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라 더욱 기대가 돼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해외특허예요. 국내특허 말고 새롭게 발명해서 해외특허를 내고 싶어요. 또한 이번에 취득한 특허경영사 자격증 및 산동대학교 특허경영 CEO과정 수료를 기반으로 더욱 노력하여 지식재산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참 이번 주 토요일날 발명진흥회에서 주최하는 지식재산 시험을 치러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상경력

- 산업발전의 원동력인 지식재산권 18건 보유
- 제41회 발명의 날 발명유공자 선정
- 제1회, 2회, 3회, 4회 발명장학생 선정
- 특허청 IP오션 최우수상
-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 한국예선 금상
- 세계 창조성대회 (Destination Imagination Global Final, d2k,3) 7위
- 전국 중소·벤처창업경진대회 은상
- 전국 청소년 발명과학품 경진대회 은상
- 한중 발명전시회 금상 수상
- 2010대한민국 인재상(정부 포상 대통령)
- *이 외 발명에 대한 열정으로 최근 8년간 국내 외 46건의 각종 장관상 및 협회장상 수상
- 발명, 벤처, 경영 수료 및 교육 총 58건 수료
- 전국 발명경진대회 초등부 심사위원 발탁 및 기타 대외 활동 17회



21세기 **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성장하는 공간**

Brain Factory, 중앙도서관

아주인들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바로 아주인이 꿈을 키우는 공간, 중앙도서관에 가보면 알 수 있다.

밤을 새워가며 시험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잠을 잊은 지 오래다. 국내외 학술논문이 폭 빠져있는 학생과 96만권의 책을 가슴에 품고 꿈을 키우는 아주인들까지.

아주인의 열정으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은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성장하는 공간이다.



아주대학교의 자랑, 중앙도서관을 소개합니다!

현재 장서 92만 여권 전자자료 약 39,000종, 멀티미디어 자료 약 34,000점, 열람석 1,925석으로 개교 이후 37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의학문헌정보센터, 법학전문도서관과 더불어 아주대학교 중앙 학술정보센터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도서관 개관시간

학기중 : 월~금 - 오전 9시 ~ 오후 9시
토~일 - 오전 9시 ~ 오후 5시
방학중 : 월~일 - 오전 9시 ~ 오후 5시
열람실 : 연중 무휴 24시간 개방

소장 장서량 (2010.3.1 기준)

장서량 : 약 917,083권
멀티미디어 자료 : 34,410점
전자저널 : 9,989종
E-Book : 28,722종

중앙도서관 층별 안내

구분	자료실(Resource Room)	열람실(Reading Room)
4층	컴퓨터/철학/심리학/사회과학/언어/과학수업자료실	열람실 D1, 토론학습실
3층	공학/예술/문학/역사/지리/신간/ 테마/ 빅북자료실	열람실 C1, C2
2층	연속간행물실, 참고도서	열람실 B1, 토론학습실
1층	대출실/멀티미디어실/전자도서관개발실	도서관장실, 정보지원실 교수연구실
지하층	지하보존서고	

도서대출 및 반납

- 학부생 : 5책 14일 (단, 신간자료실 도서의 경우 7일)
- 홈페이지를 통해 반납연기 가능(연기일로부터 14일 연장)
- 도서 연체 시 1일 100원 연체료 부과

멀티미디어 자료 서비스 및 소극장 이용

종류 : DVD, Video Tape, CD-ROM, Audio CD, Audio Tape 형태의 교양 및 다큐멘터리,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어학 자료 제공

용도 : 학술 자료, 인터넷 강의, 어학, 위성방송(CNN, BBC, TV5, CCTV 등) 시청 등 소극장 운영(32석) *이용시간_평일 09:00 ~ 18:00(방학 중 09:00~17:00)

*수업시간 중 멀티미디어 자료가 필요한 경우

도서관 에티켓

1. 물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의 반입은 금지
2.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자리는 항상 깨끗이 정돈
3. 도서관은 조용해야겠지요? 소음 삼가기
4. 도서관내 모든 자료는 학우 여러분의 자산이니 훼손하지 말고 깨끗이 사용
5. 좌측통행 NO, 우측통행 YES
6. 타인에게 신분증 및 열람증 대여 금지
7. 도서관내 흡연 금지

아주인들이 말하는 중앙도서관

꿈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는 아주인들에게 중앙도서관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공간이다.
개인 공부방이 되기도 했다가 휴식공간이 되기도 한다.
지금, 중앙도서관에 대한 아주인들의 애정과 생각에 대해 직접 들어보자!

Question

"나에게 있어 중앙도서관은 000대!"

LIBRARY INTERVIEW

Answer

임소담(경제학 08)동문

저에게 있어 중앙도서관은 '휴식 공간'입니다. 휴식과 공부를 함께할 수 있거든요, 공부는 영어, 휴식은 독서로요, 중앙도서관의 장점은 방대한 멀티미디어 자료예요, 소장하고 있는 DVD들이 많거든요, 도서관 에티켓 중 꼭 지켜줬으면 하는 것은 '크게 떠들지 않기'예요, 도서관의 기본은 정숙! 모두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우(경제학 03)동문

저에게 있어 중앙도서관은 '여가생활'입니다. 도서관에서 여가를 다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자격증 시험 준비 중이라 일주일에 5번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의 자랑은 방대한 멀티미디어 자료인 것 같아요, 저도 여가생활로 자주 이용하고 있고요, 도서관에서 꿀볼건은 공부하지 않고 자리만 맡아두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까지! 여러분~ 도서관에서는 정숙!



이민혁(건축학부 10)동문

저에게 있어 중앙도서관은 '지식의 요람'입니다. 책들도 많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거든요, 현재 일주일에 2~3번 정도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수학, 전공 관련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부하다가 툭툭툭 구두 소리가 들리면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서관의 애정행각은 정말 NO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에서는 공부를 해야겠죠^^

고운기(전자공학부 07)동문

저에게 있어 중앙도서관은 '공부방'입니다. 일주일에 매일매일 이용하는 저만의 공부방이죠, 도서관에서 주로 전공과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책상이 집에 있는 책상만큼이나 넓어서 좋아요, 도서관 에티켓 중 꼭 지켜줬음 하는 것은 정숙입니다. 툭툭툭 구두소리도 주의해줬음 좋겠어요, 발 뒤꿈치를 살짝 드는 센스!

백규태(생명·분자공학부 06)동문

저에게 있어 중앙도서관은 '최종병기'입니다.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최종병기인 셈이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도 빼먹지 않고 와서 전공 공부와 영어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책도 많고 칸막이식의 공간과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이용 공간 등 다양한 시설들이 많아서 일주일 내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한마디 한다면 서가에서 꺼내본 책들을 제자리에 꽂아 주면 다음 이용하는 사람으로써 정말 정말 고맙겠습니다.^^



장기훈(교통시스템공학 05)동문

저에게 있어 중앙도서관은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일주일에 5번 정도 도서관에서 전공 과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중앙도서관은 타 도서관에 비해 자료가 많아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커플들의 애정행각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잠을 청하시는 분들 중 코는 제발 안 골았으면 좋겠습니다.



나현민(행정학 04)동문

저에게 있어 중앙도서관은 '군대'입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되는 곳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도서관에 와서 토익을 공부하고 있어요, 도서관 내 학습 분위기가 좋아서 공부 잘되거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열람실 앞에서도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 열람실 밖이긴 하지만 소리가 다 들립니다.



아주인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너의 머릿속이 궁금해~!

요즘 인터넷상에서는 연예인들 혹은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뇌구조가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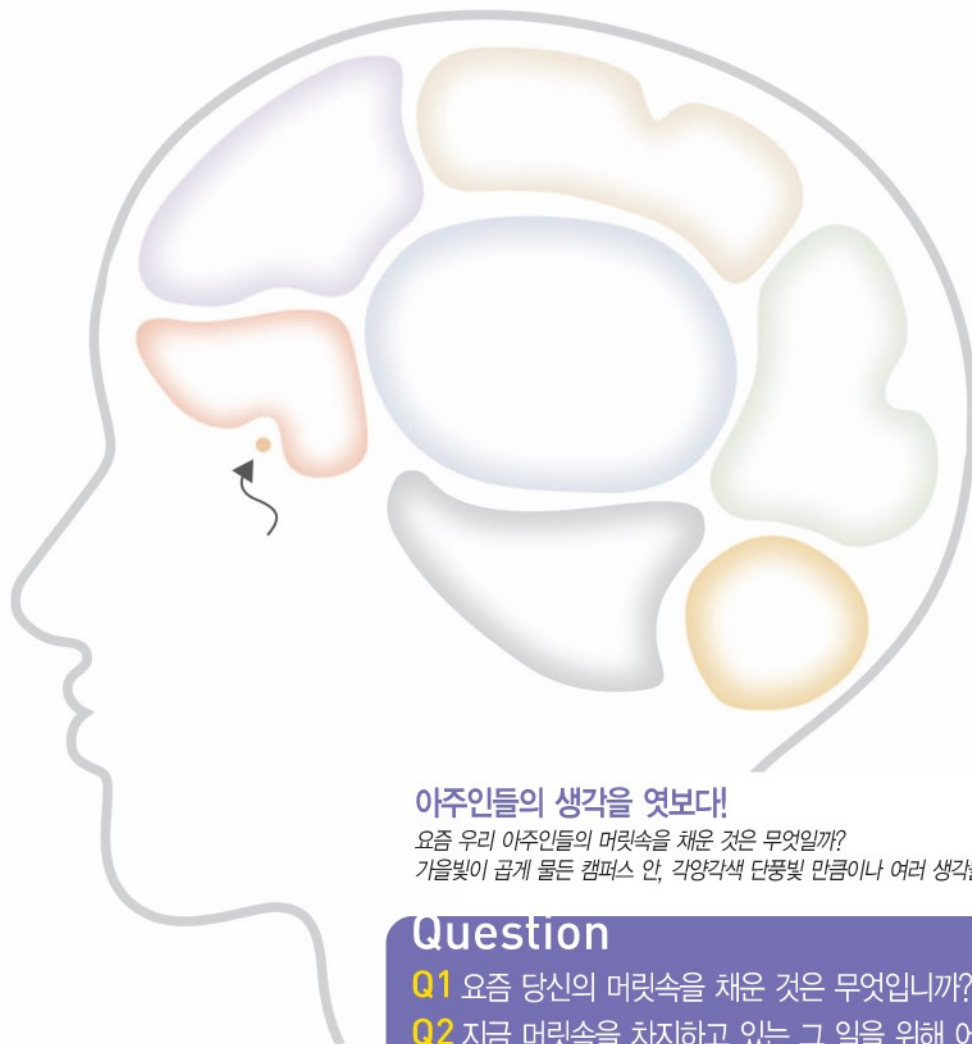
나와 다른 사람들의 숨은 마음이 또 다른 재미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 아주인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또 내 머릿속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

내 머릿속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과 함께 우리 아주인들의 숨은 마음까지 살짝 엿보자.

요즘 당신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무엇인가요?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현재 내 머릿속에 자리 잡은 생각들을 하나씩 적어나가 보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도 몰랐던 나만의 뇌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아주인들의 생각을 엿보다!

요즘 우리 아주인들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무엇일까?

가을빛이 곱게 물든 캠퍼스 안, 각양각색 단풍빛 만큼이나 여러 생각들로 가득 찬 아주인들을 만나봤다.

Question

Q1 요즘 당신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무엇입니까?

Q2 지금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그 일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Q3 복잡한 머릿속을 정화시키기 위해 어떤 행동과 생각들을 하나요?





ROAD INTERVIEW

Answer

최진호(경제학 06)동문

취업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커요, 그래도 전 진로를 정한 상태라 제게 꼭 필요한 CPA(공인회계사)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답답할 때는 노래를 불러요, 현재 대중음악을 부르는 동아리에서 보컬을 맡고 있거든요,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머릿속도 정화시킵니다.

김정훈(법학부 03) 동문

나이가 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과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격증 준비로 매일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보통 여행을 다니면서 머릿속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노력한 만큼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안 좋은 생각들은 떨쳐버립니다.



송인성(경제학 04) 동문

아무래도 취업이겠조, 진로에 대해 고민하면서 취업에 필요한 영어, 자격증 등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여자친구를 생각해요, 여자친구 생각하면 힘이 막 나거든요, 여자친구를 생각했는데도 꼬인 머릿속이 풀리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여자친구랑 놀러갑니다.^^

이소은(사회과학부 07) 동문

학점을 올려야 되는 상태라 학점만 생각하고 있어요, 학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겠조?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는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요, 맛있는 것도 먹으러가고요, 그리고 나면 머릿속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입니다.

김아래(경영학 06)동문

결혼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30살 전에 결혼해서 아기를 빨리 낳고 싶어요, 제 일에 대한 능력도 결혼 전에 쌓고 싶고요, 일단, 결혼과 아기를 위해선 체력관리를 해야겠조, (웃음) 그리고 취업에 대한 준비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아로마 향을 피워놓고 잠을 자요,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기도요,

백규태(생명·분자공학부 06)동문

지금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학점 관리, 두 번째는 영어공부, 세 번째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한 미래변화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노력을 하고 있긴보다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혼자 조용히 명상을 하며 머릿속을 정리해요,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 실컷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고윤기(전자공학 07)동문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대해 계획하고 있어요, 노력이요? 사실 계획만 하고 있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술술 준비해야겠조,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노래를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듣고 있다 보면 어느새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이민혁(건축학부 10)동문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이라면 비켜갈 수 없는 군대문제와 학점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노력은 지인들의 도움을 받는대거나, 학점을 올리기 위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을 정화시키는 저만의 비법은 친구들과 마시는 시원한 맥주 그리고 즐거운 대화입니다.



아주 속
또 하나의 울타리

아주대안의 젊은 기업, 패기와 열정으로 뚝뚝 뭉친 AFIA!

증권 소학회 AFIA(아주금융투자조합)편



“

100명 이상의
주주를 거느린
학생 기업이 있다.
영업부가 있는 것은 물론
대표이사 및
이사-부장-신입사원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 동아리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기업,
AFIACH!

”

19년의 역사가 숨쉬는 AFIA

AFIA는 Aju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의 약자로 설립한지 19년 된 유서 깊은 모임이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전에서 응용해보자는 취지에서 1992년에 지도교수님이신 송영균 교수님과 재학 중이던 동문들이 정식으로 자본금을 모아서 설립되었다. 학생 회사를 표방하여 공부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신탁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 AFIA는 19년의 역사만큼 많은 활동을 통해서 위상을 다져 왔다. 1,800여만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실제 투자활동에 참여,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실전에 이용하고 있으며 중앙증권에서 지원하는 BUS 프로그램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부터 6년 연속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대학생주식투자 동아리 연합에서 타 대학들과 연계하여 각종 세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매스컴(한국경제, 매일경제,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현재 AFIA 회원들은 각종 스터디, 자격증 공부 등

을 통해서 미래를 함께 준비하며 주주총회, 창립제, 체육대회 등 다양한 모임을 통해 졸업한 선배님들과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아주대안의 주식회사

AFIA는 3개의 부서(영업부·조사부·총무부)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영업부에서는 자본금을 가지고 가치 투자를 기본으로 실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며, 조사부에서는 경제·산업·기업분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매주 정기회의에서 계좌현황과 리서치를 피드백 해주고 있으며, 총무부는 AFIA 내부 예산을 관리 운영하는 부서로써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조 역시 회사체제로 운영하여 대표이사 및 각 부서별 이사-부장-신입사원의 체제로 운영되며 회의 시 모든 사원이 정장을 입고 회의에 임함으로써 마음은 이미 한 기업의 일원으로 느끼도록 하고 있다. 동아리보다는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더 잘 어울리는 AFIA의 모습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패기와 열정

AFIA의 교내 활동으로는 동아리 콘테스트·학술제 참여와 매년 1~2회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학투자연합동아리(UIC)의 회원으로 타 대학 증권 동아리와의 연계를 지속하고 있다. 금년 10월에는 서울·경기 지역대학 동아리들을 초대하여 금융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각종 세미나 강연회 및 리서치와 투자대회에 참가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증권시장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올해, 동부문화재단에서 주최한 논문 공모전과 신한 그룹에서 주최한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하였고 12월에 있을 52개 대학의 증권 동아리가 참여하는 리서치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현재 자본 통합법 시행 이후 M&A 부문이 강조되어 현 증권사들의 리서치에 Valuation을 강조하는 추세다. 이에 발맞추어 AFIA는 신입사원 Study에서 Valuation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AFIA는 사원들과의 단합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연간 2번의 연수회·기업탐방을 가지고 있으며 신 성장 산업의 하나인 바이오 산업의 주요 기업 셀트리온을 방문하기도 했다.

선후배 및 동문간의 끈끈한 유대관계

AFIA에는 중요한 조직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졸업생 선배들의 '21C 위원회'라는 조직이다. 주주총회·창립제·체육대회·송년의 밤 등 AFIA에는 졸업생 선배들과 함께 하는 여러 행사를 하고 있으며 졸업생 선배들의 참여도 높다. 졸업생 선배들은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각종 행사나 대회 준비 시 어려운 일에 맞닿았을 때 모두가 소방관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 AFIA 구성원들은 이러한 끈끈한 유대가 지금의 AFIA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AFIA의 3가지 슬로건

AFIA를 나타내는 3가지 슬로건 중 첫 번째는 '월스트리트를 위협하는 젊음'이다. 월스트리트는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지로 세계 제일의 규모를 자랑하는 뉴욕 주식(증권)거래소를 비롯하여, 대규모의 증권회사·은행이 집중되어 있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를 향한 포부를 나타내는 이 슬로건은 AFIA의 열정과 꿈을 상징한다. 두 번째는 '가치투자' 이 좌우명은 AFIA의 투자 성향을 나타내는 말이다. 현재 AFIA의 자본금의 투자와 Research 분석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AFIA는 가족이다" 이는 지도교수님인 송영균 교수님의 방침으로서, 비록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서로가 사회적인 만남을 통해 가족과 같은 정신적인 교류를 하자는 뜻이 있다. 졸업 이후에도 AFIA의 애정이 식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이 마음으로 AFIA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AFIA의 가족이 되려면

AFIA의 가입요건은 특별한 제약이 없다는 것. 주로 경영학부와 e-biz로 구성되었으나 타 학부 모두에게 AFIA의 문은 열려있다. 다만 3학년 이상은 원칙적으로 승인이 되지 않는다. 이는 기본적으로 AFIA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1년의 연수를 받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 그러나 자신이 열정이 있고 꼭 해야 하겠다면 4학년 1학기까지 활동할 것을 약속하고 지도교수님과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A
F
I
A

수상내역

- 1996 현대증권 증권투자강연대회 1위, 9위(2개 팀 참가)
- 1997 서울시립대학교 증권연구회가 주관한 대학생 모의 증권 투자 대회 종합 1위
- 2004~2010 상반기 중앙종합금융증권 투자동아리 지원 program BUS 6년 연속 선정
- 2008~2010 교내 동아리·소학회 콘테스트 수상 (07장려상 09은상 10장려상)

AJOU 2010 INTERNATIONAL DAY

아주대학교 안에는 국적을 불문한 또 하나의 작은 세상이 존재한다. 세계의 무대가 멀게만 느껴진다면
전 세계 43개국의 외국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세계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
'아주인터내셔널데이' 축제의 현장으로 떠나보자.



Ajou it's a small world!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주대학교에는 G43 대학
생들이 먼저 모였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아주인
터내셔널데이'가 2010년 11월 4일 아주대 체육관 뒤 잔디광장에서 치러진
것.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아주대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이 자국
의 문화와 음식을 소개하는 행사다. 전 세계 각 43개국 600여명의 외국인 대
학생들이 저마다 자리를 잡고 모국의 전통음식을 직접 만들어 선보여 세계음식
축제 외에도 각국 장기자랑 및 단체게임, 한국 전통 혼례 복장체험, 민속놀이
체험 등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
램으로 진행되었다.



다문화 이해의 장, 아주인터내셔널데이

다문화 시대를 맞아 다민족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은 미래를 이끌어 갈 대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산 교육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대학교 인터내셔널데이는 외국의 다양한 문화와 음식을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국 유학생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의 소통을 넓혀갈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다문화 가족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인터내셔널데이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가 높은 '세계음식축제(World Food Festival)'는 외국인 학생들이 직접 마련한 각국의 전통음식을 싼 가격에 판매하고, 수익금 일부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도 한다.



세계는 아주 가까이에 있다

세계의 무대가 멀게만 느껴진다면 아주인이 아니다. 경제력과 시간 등 세계무대를 멀게 느끼는 다양한 이유를 아주대학교가 없애주기 때문이다. 현재 아주대학교에서는 전 세계 각국의 외국인 학생들이 공부 중이다. 교정에서 심사리 외국인 학생들을 마주할 수 있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세상으로 통하는 가장 빠른 길이 아주대라고 할 만큼 아주대학교에서는 다양한 세계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전 세계 58개국 206개 자매대학 및 5개 국제교육기관과 협력을 맺고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대표적이고 그 밖에도 해외 현장 연구, 해외 인턴십, 영어강의, 국제어문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2010 대한민국 게임대상」 김민규, 오규환 교수 수상

11월 17일(수) 부산에서 열린 「2010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김민규(인문)와 오규환 교수(미디어)가 산학협력진흥 분야의 공로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우수학술상(게임학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대한민국 게임대상은 게임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매년 출품된 게임물들 중 우수작품에 대해 시상하는 행사다. 최고상은 대통령상으로서 국내 최고 수준의 훈격을 가진 대회다. 본상에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게임기술상(시나리오, 그래픽, 캐릭터 등)이 있고, 이외에도 인기게임상, 우수업소상, 사회공헌기업상, 공로상, 우수학술상 등이 있다. 산학협력진흥 분야의 공로상을 수상한 김 교수는 “그 동안 연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한 것이 높이 평가되어 수상한 것 같다”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긴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간강사 공개채용키로

우리학교가 시간강사 공개채용을 확대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간강사 공개채용 관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연간 450명(2010년 1학기 기준 220명)에 달하는 강사들을 공개채용시스템으로 선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부분 대학의 강사채용은 전임교수의 개별적인 연고나 친분에 기초하여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학교도 특정 단과대가 시범적으로 공개채용을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강사를 채용해 왔다.

공개채용 지원자는 학교 홈페이지(www.ajou.ac.kr) 강사 채용 공고에 따라 온라인상으로 지원서를 작성, 접수하면 된다. 채용결과는 각 학부별로 지원자에게 통보한다. 아주대는 11월 중 기초교육대학 강사 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개채용에 들어간다. 현재 전체 강의의 약 21% 정도를 강사들이 맡고 있다(전체 1,534개 개설 강의 중 334개, 2010학년도 1학기 기준). 특히 우리학교의 강사 공개채용 시행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간강사에 대한 신분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법안 도입에 앞서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는 11월 12일 시간강사와 관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시간강사’를 ‘강사’로 명칭을 전환하고,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과 권고사직이 엄격히 제한되며, 반드시 공개채용 해야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만표 교무처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우수한 강사들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교육의 질적향상은 물론 궁극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축학부 설계팀 학생3명, 「대구건축문화비엔날레국제건축공모전」 대상수상



우리학교 건축학부 김건창(03), 남기정(06), 최재원(07) 학생이 대구건축문화비엔날레 주관하고 대구광역시가 공동 후원한 2010 대구건축문화비엔날레 대구건축공모전(The DAEGU International Architecture Competition)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10 대구건축문화비엔날레(Daegu Architectural Culture Biennale)는 지역 특성 이해를 통해 대구건축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세계 속 대구건축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총 200여개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10작품이 수상작에 선정됐다. 학생들은 “Metonymical Basin”(환유의 분지)을 주제로 대구의 상징인 분지를 상징화시켜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제안해 대상을 수상했다. 상금 1,200 만원과 상패를 받았으며 작품은 11월 17일 부터 21일까지 대구 범어동 두산 위브더제니스 공개홀에서 전시됐다.

한편, 학생들이 속한 UF Association(Unlimited Frame)은 자유로운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2005년 만들어진 우리학교 설계팀이다. 2006 건축문화대상 2위, 2007 태양열 학생공모전 2위, 2008 강구조 공모전 장려, 2009 Evolo 국제공모전 특선 등 20 여회 이상의 공모전에서 수상한 바 있다.

계광열 명예교수, 페인트처럼 칠하는 태양전지 염료 개발

계광열 명예교수(자연과학부 화학전공)가 유리창 등 건물 바깥에 칠해서 태양광에너지를 얻는 ‘태양전지용 유기염료(염료감응 태양전지)’를 개발했다. 이번 개발은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핵심재료인 염료의 분자를 조작해 흡광계수가 큰 염료 화합물의 설계와 합성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다. 또한 이 분야 최고권위자인 마이클 그라첼 스위스 로잔공대 교수와 공동 개발한 새 염료화합물은 넓은 파장 영역에서 빛 흡수를 유도하는 안테나 기능의 화학적 화합물을 첨가한 것이 특징이다. 염료감응 태양전지는 식물의 광합성원리를 모방해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차세대 태양전지로 투명성과 유연성이 가장 큰 장점이다. 투명한 색상 때문에 건물의 유리창에 부착해 가정용 난방이나 차량의 동력원 등으로 이용가능하다.

현재 태양전지용 유기재료 개발업체인 솔라시스 대표로 활동 중인 계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화학적 안테나를 첨가한 염료화합물은 기존 태양전지용 염료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최운실 교수, 「세계 평생학습 명예의 전당」에 헌액

평생교육원장 겸 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장 최운실 교수가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제8차 세계성인교육회의에서 '2010 세계 평생학습 명예의 전당(ACEHOF: INTERNATIONAL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HALL OF FAME, 10/27)'에 동양인으로 유일하게 헌액되는 영예를 안았다. 「세계 평생학습 명예의 전당」은 세계성인계속교육학회(ACE)의 주관으로 평생교육분야에서 크게 공헌한 전세계 평생교육학자와 전문가들을 헌액하는 수상제도다. 오글라호마대 성인계속교육학부의 써먼 화이트(Thurman J. White) 박사의 주도로 1993년 출범했다. 지금까지 17년간 전 세계에서 170명의 평생교육자들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명예의 전당에는 4대륙 7개국에서 9명의 평생교육학자들이 헌액됐으며, 한국인으로는 김신일 전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헌액된 바 있다. 이번 헌액은 최 교수가 30여년 동안 평생교육 분야에서 펼쳐 온 학문적 활동과 실천활동 공적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국 평생교육계가 세계 수준으로 한층 더 도약했음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 최운실 교수는 "개인적인 영예보다도 한국의 평생교육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돼 더욱 기쁜 마음"이라면서 "생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평생교육분야의 연구와 실천, 차세대 후진 양성'이라는 골든 트라이앵글 미션을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금까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저명한 평생교육자로는 세계적 민중교육론자인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 브라질, 2008년 死後 헌액)선생, 안드라고지론의 창시자이자 '성인교육의 아버지'인 말콤 노울즈 교수(Malcolm Knowles, 미국, 1996년 헌액)가 대표적이다. 또 평생교육계 세기의 거장 영국의 피터 자르비스 교수(Peter Jarvis, 1997년에 헌정), 미국의 메리암 교수(Sharan B. Merriam, 2003년 헌액), 독일의 힌젠 교수(Heribert Hinzen, 2006년 헌액) 등도 이름을 올렸다.



제3회 한중일 3개대 이공학포럼 개최

한중일 3개국 이공학 교수 40여명이 참가하는 이공학포럼이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우리학교(수원&서울 등)에서 개최됐다.

올해 포럼이 3회째로 2008년 중국 산둥대에서 1회 포럼이 열렸고, 작년 일본 쿠마모토대에서 2회 포럼이 개최됐다. 한중일 3개 대학 이공학포럼은 연구분야 인적네트워크 확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각국의 연구역량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5일 10시 쿠마모토대 이사오 타니구치 총장, 박종구 총장직무대행, 장중순 공대학장 등이 참석하는 전체포럼을 시작으로 IT, 녹색기술과 바이오기술 등을 포함한 4개 분야로 나뉘어 발달관, 원천관 등에서 학술포럼이 진행됐다. 아울러 3개국 참가단은 학술포럼 이외에도 4일 '아주 인터내셔널데이' 행사에도 참석하는 한편, 6일에는 수원과 서울 주요 문화유적을 탐방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이 포럼은 2008년 한중일 총장포럼에서 3국 간사대학인 아주-산둥-쿠마모토 대학이 모여, 한중일 총장포럼의 연장선상에서 3개국 대학 간 연구협력 증진을 위해 공학 포럼을 시작해 보자는 본교의 제안으로 2008년 3개 대학 공학 워크숍이 시작됐다.

정보컴퓨터공학부 학생들, 제10회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입상

정보컴퓨터공학부 박용균(05), 표은성(05), 류주성(07) 학생이 2010-2011 ACM-ICPC(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International Collegiate Programming Contest) 아시아 지역 대전대회 겸 제10회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에서 입상했다. 이 대회는 전 세계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이 경쟁하는 최고규모의 대회이며, 세계 결선팀을 뽑기 위한 아시아 지역 예선과 한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를 겸한 대회다.

IBM, 넥스, 엔씨소프트, NHN 등이 후원한 이번 국내대회에 우리학교에서는 10팀이 출전해 3팀이 각각 10위, 11위, HM을 각각 기록하며, 국내 대학교에서 7위를 기록했다.

우리학교 입상팀은 동상과 상금 50만원을 받았다. 입상한 학생들은 모두 정보컴퓨터공학부 알고리즘 연구소학회 ANSI 소속이다. 학생들은 학기중은 물론 방학 때도 프로그래밍 능력 향상을 위해 밤낮없이 연구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터넷 채점 서버로 어디서나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입상한 박용균 학생은 "몇 년째 소학회를 지도해주고 계신 위규범 교수님과 대회 경비를 지원해주신 학생처에 감사드립니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분자과학기술학과, 한국마사회 도핑센터와 공동 연구 협약 체결



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학과장 김재호 교수)가 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소장 한관석)와 유전자 및 도핑 분석 관련 기술의 연구와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산학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공동 연구 협약 체결을 통해 산학 공동 연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연구 인력과 기술 정보 교류에 상호 협조했다. 이로서 분자과학기술학과는 공동 연구에 필요한 전문적인 유전자 및 도핑 분석 기술의 전수와 자문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는 공동 연구에 필요한 분석 장비의 사용과 시료의 채취 등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공동 연구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 교류를 위한 세미나 혹은 워크숍을 개최해 산학 양 방향의 교류 증진을 통해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대, (주)연합인포맥스와 업무협약식

우리학교 경영대학학장 이창환은 10월 28일 12시 율곡관 제1회의실에서 (주)연합인포맥스(대표 박호근)과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주대는 이 협약을 통해 연합인포맥스로부터 금융정보 분석 단말기(ID) 16대를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경영대 측은 이를 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금융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견 및 개선안을 마련해 (주)연합인포맥스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연합인포맥스측 박호근 대표이사, 유상원 콘텐츠개발본부장과 아주대 이창환 경영대학장을 비롯 원동철, 독고윤, 구형건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날 오픈한 아주대 경영대학 트레이딩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마련된 인포맥스(금융정보 분석 단말기) 16대를 비롯, 해외 데이터 부문의 로이터 단말기 2대, 국내 데이터 부문의 마켓포인트 단말기 3대 등 총 21대의 단말기를 확보함으로써, 금융 시장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

자연과학대학 하나영 교수 「아모레퍼시픽 여성과학자상 신진과학자상」 수상

자연과학부 물리학과 하나영 교수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아모레퍼시픽이 공동 주관하는 '제5회 아모레퍼시픽 여성과학자상'의 '신진과학자상'을 수상했다.

하 교수는 이화여대 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8년 본교 교수로 임용됐다. 주로 액정 및 유기재료를 이용한 나노구조기반 광전 소자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여러 편의 SCI급 논문을 국제저널에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나영 교수는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잠재력 있는 미래의 여성과학자들에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11월 9일 오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리는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술대회에서 열렸다. 아모레퍼시픽 여성과학자상은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과학자상으로, 여성과학자의 활약을 알리고 연구를 장려하여 과학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e-비즈니스 학부 이상근 교수 연구팀, 한국경영정보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e-비즈니스학부(대학원: 경영정보학과)의 이상근 교수와 박사과정 양창규 군은 11월 12일에 개최된 한국경영정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The Impact of Smartphone Release: A Customer Immigration Model for ICT Market'이라는 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 논문은 스마트폰 시장의 출시 이후 소비자의 변화 이동 현상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한 논문으로 통신업계가 실질적으로 통신시장분석에 유용한 tool을 제공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외에도 이상근 교수는 작년(Small Business Economics)에 이어 올해(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에도 SSCI 등재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다. 또한, e-비즈니스 교수들이 추축이 된 '메타버스 연구팀'의 연구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김창수, 전병준, 변원기, 이신석 석사과정 학생들은 지난 5월에 pan-pacific business association이 발리에서 개최한 국제 학술대회에서 그간 자신들이 연구해 온 분야를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김창수군은 아주대 출신으로 이미 2편의 논문을 학진 등재학술지에 게재했으며, 3편의 논문을 유수 국제학술지에 투고했다.

수시2차 20.66대 1로 마감

- 인문학부 30.96대 1, 사회과학부 27.43대 1

- 학생부 100% 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2011학년도 수시2차 모집 마감결과 286명 모집에 5천 910명이 지원해 20.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우리학교는 2011학년도 수시2차 전형에서 학생부 100%로만 전형을 실시하는 학생부 우수자전형으로 286명을 선발하며 인문학부가 23명 모집에 712명이 지원해 30.96대 1의 경쟁률을, 사회과학부가 30명 모집에 823명이 지원해 27.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자연계는 공과대학 화공신소재공학부가 12명 모집에 324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경쟁률인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평균 17.5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인문계열은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인 학부인 e-비즈니스학부도 23.8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비교적 고른 분포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평균 27.5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시2차 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며, 합격자는 수능성적 발표 이후 12월 10일 발표된다.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약 맺어

법학전문대학원(원장 백운기)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소장 박윤선)와 학생들의 실무실습과 법률봉사활동에 관한 협약을 지난 22일 체결했다.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법률상담 등의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강의실에서 이론으로만 공부한 법률지식을 직접 활용해 봄으로써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된 것이다. 또한 미래 법조인들의 무료 법률봉사활동을 통해 '정의와 봉사를 지향하는 법률가 양성'이라는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우수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소 자체의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백 원장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와와의 협약을 통해 실무에 능통한 법률가를 양성함과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법조인 육성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중국에 현지 사무소 개소



우리학교가 중국 북경 대외경제무역대학 내에 중국사무소를 열고, 10월 11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종구 총장직무대행, 송영균 대외협력처장, 문성기 국제교류재단 북경사무소장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대외경제무역대학 왕링 당서기, 스자옌젠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문을 연 중국사무소는 중국내에서 아주대를 홍보하고 한국유학반 운영을 통해 유학생 유치 확대와 정보 수집 관리 기능도 한다. 또 한국 유학생들을 위한 비즈니스 중국어 체험센터의 역할도 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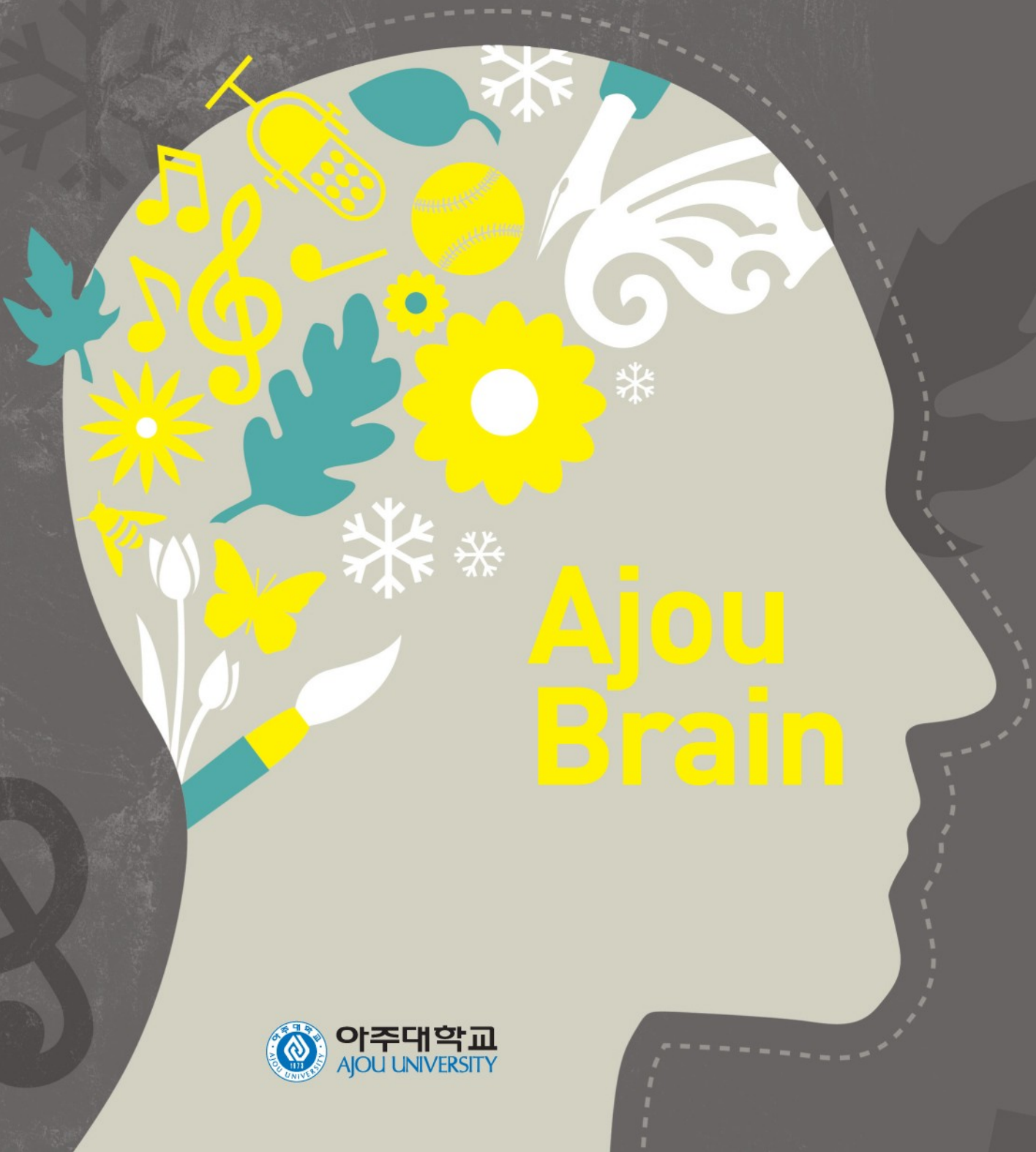
아울러 두 대학 경영대학 간 정기학술세미나 개최와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교환교수 파견, 유치, 교환학생 프로그램 확대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을 위해 두 대학은 지난 2009년 6월 자매결연협정을 맺은 바 있고, 올해 7월에는 비즈니스 여학센터 및 사무소의 상호 설치 협정을 맺었다. 대외경제무역대도 조만간 아주대 내에 한국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박종구 총장직무대행은 이날 개소식에서 "이번 아주대 중국사무소 겸 비즈니스 중국어 체험센터 개소가 두 대학간의 교류를 더욱 긴밀히 하는 계기는 물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외경제무역대학은 1951년 개교 이래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부속속대학으로 1960년부터 국가중점육성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중국내 명문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주뉴스는 끊임없는 학문 연구와 교육, 그리고 도전정신을 통한 다양한 아주인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교내소식입니다. 모교 발전을 위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께 보다 좋은소식과 자랑스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주뉴스는 재학생 및 교수님 그리고 동문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나 학교를 위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ongbo@ajou.ac.kr, 031)219-2917~9/ 2060)



Ajou Brain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